

동남고 출신 유승민, 유럽 進出

지난 7일 출국 ... 외국인 最高 대우 받아



2004아테네올림픽 때 만리장성을 허물고 16년만에 탁구 남자단 금메달을 찾아온 포천의 영웅 '탁구형제' 유승민(23·삼성생명)이 유럽 무대를 정복하기 위해 출국했다.

2004아테네올림픽 때 만리장성을 허물고 16년만에 탁구 남자단 금메달을 찾아온 포천의 영웅 '탁구형제' 유승민(23·삼성생명)이 유럽 무대를 정복하기 위해 지난 7일 출국했다. 유승민은 이날 오후 3시10분 루프트한자 LH 713편을 이용해 인천공항을 통해 오스트리아로 떠났다. 지난 6일 삼성생명 탁구단 관계자는 "유승민이 1월 9일부터 6개월 간 유럽 챔피언 클럽리그에 참가하기 위해 유럽 챔피언 클럽리그의 오스트리아 SVS클럽과 단기 임대선수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유승민은 9일 첫 경기를 갖고 오는 19~23일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열리는 2005크로아티아오픈에 참가, 올해 국제탁구연맹(ITTF) 프로투어를 시작한다. 동남고고 시절 독일 분데스리가 뒤셀도르프팀 임대선수로 5개월간 활약했던 지난 2000년에 이어 2번째로 유럽 무대에 진출하는 유승민은 SVS클럽 멤버로 6개월간 총 10경기를 뛰고 경기당 2천유로의 출전수당과 1천유로의 승리수당 외에 아파트, 운전기사가 딸린 승용차와 한국인 통역, 6개월간의 왕복항공료 전액 부담 등으로 역대 유럽진출 외국인선 수중 최고대우를 받는다. 유승민은 "약점인 수비를 보완하고 유럽 탁구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며 "아테네올림픽 후 부상 후유증 등으로 성적이 부진했지만 이번을 계기로 실력을 쌓아 4월 말 세계선수권대회 개인전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지협배기자 94spic@hanmail.net

인터뷰 - 체육우수지도자⑩

송우초등학교 육상부 코치 송 경 이

"포천 육상 꿈나무 육성 산실"



송우초 송경이(2열 맨 우측) 코치와 어린 꿈나무들이 방학중임에도 불구하고 추운날씨에 좋은 선수로 성장하길 바라며 화이팅하고 있다.

"육상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송경이(32·女) 코치는 육상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아왔고, 현재 송우초등학교에서 육상 꿈나무들을 지도하고 있다. 400m와 400m 허들 선수로 활약했던 송코치는 의정부 경민여상을 졸업하고 경기도청 선수로 6년, 남재구군청 선수로 1년 8개월을 근무했다. 7년 전부터는 송우초등학교의 육상부 코치를 맡아왔다.

"처음에 지도했던 학생들이 지금 고3이다"며 "그동안 많은 선수들을 부모님의 반대로 인한 포기나 선수들을 타종목으로 보내야만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는 송코치. 현재 송우초 육상부는 안형태 감독을 위시해 송경이 코치와 3~6학년의 15명의 선수들이 미래의 한국 대표 육상선수로 활약하기 위해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박운국 시장을 비롯하여, 도약 등 고른 선수분포를 보이고 있는 송우초 선수들을 송 코치는 기본기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저학년은 기본자세부터 체력훈련까지 지도하고, 고학년은 기술과 체력훈련에 중점을 두고 지도한다"는 송코치는 "그래도 전국에서는 상위권에 속하는 학교입니다"고 선수들의 기량이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수들이 조금 더 분발해 큰 대회에서 두 금메달을 따 낼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송우초 선수들의 운동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 "조상기 교장선생님을 비롯해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선수들은 부담 없이 운동을 할 수 있다"며 "육상을 하기에는 더 없는 조건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송 코치 역시 비인기 종목이라는 육상의 현실에는 큰 벽을 느낀다. "좋은 선수들을 놓칠 때가 가장 가슴 아

프다"며 "많은 학부모들이 육상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최근에는 운동보다는 공부 쪽으로 상급학교를 진학하길 원하는 학부모들이 많다"고 밝힌 후 "특히 학생들의 학원시간과 운동시간을 조절해야만 육상을 지도할 수 있다"며 "선수지도 역시 현실을 반영해야만 한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수 선발 시기와 기준에 대해 "주로 가을 체육대회를 선발한다"며 "주로 신장과 체력을 많이 본다"고 밝혔다.

연계지도가 아쉽다는 송코치. "포천에는 송우초와 영북초, 갈월중에서 육상 선수들을 양성하고는 있지만, 그 위의 상급학교가 없어서 주로 수원이나 의정부로 선수를 방출해야만 한다"며 "관내에도 육상선수들이 진학 할 수 있는 고등학교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간 합동훈련도 실시하고 싶다는 송코치. "중학교는 방과 후 일정한 장소에서 각 학교 선수들간의 합동 훈련이 가능하지만, 초등학교는 방과 후 학생들이 학원에 가야 하기 때문에 모여서 운동할 수 있는 없다"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국가나 관계기관 등의 적극적인 도움을 바란다는 송 코치는 관내 육상지원에 대해 바라는 점이 있다.

"엘리트 체육이라는 명분 아래 운동선수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초등학교 선수들이 외연을 받는 것 같다"며 "미래의 지역 대표 선수들을 키우기 위한 시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송 코치는 "비인기 종목이지만 열심히 지도에 따라주는 선수들에게 감사하다"며 "우수한 선수를 발굴하는데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협배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위촉

22명 지도자 및 선수 위촉식



포천시는 지난 3일 포천시청 소회의실에서 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위촉식을 마쳤다.

포천시는 지난 3일 포천시청 소회의실에서 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위촉식을 가졌다. 박운국 시장과 이정열 부시장, 위촉선수 및 관계자 20여명이 참석

한 이날 위촉식은 태권도, 역도, 육상, 배드민턴 지도자 및 선수들에 대한 재위촉 및 신규위촉으로 마련됐다. 이날 재위촉된 지도자 및 선수는

▶태권도 1명 ▶역도 5명 ▶육상 4명 ▶배드민턴 4명이고, 신규 위촉자는 ▶태권도 6명 ▶육상 1명 ▶배드민턴 1명이다. 박운국 시장은 선수들에게 "고진감래(苦盡甘來)의 마음으로 시종일관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며 "선수들을 위해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당부했다.

이날 위촉된 지도자와 선수는 다음과 같다.

▶태권도 ▶감독 임영선(신) ▶지도자 김실용(재) ▶선수 이원영(신), 최희중(신), 이종호(신), 강병진(신), 오인식(신) ▶역도 ▶지도자 최광규(재) ▶선수 이우성(재), 변재영(재), 김경희(재), 안영주(재) ▶육상 ▶지도자 천봉식(재) ▶선수 이문재(재), 강신해(재), 김미봉(신), 강혜민(재) ▶배드민턴 ▶지도자 차운숙(재) ▶선수 김경화(재), 모선영(재), 정승혜(재), 양은혜(신)

※신규위촉=(신), 재위촉=(재) 지협배기자 94spice@hanmail.net



도리동동장군축제 개장 2만여 관광객 몰려 도리동동장군축제가 오는 30일까지 개최되는 가운데 이문면 백운계곡 일대는 축제의 열기로 한창이다. 지난 9일 도리동동장군축제 현장에는 2만여명의 관광객이 찾아 겨울축제의 맛을 즐기며 성공적인 축제를 마감하고 돌아갔다.

지협배기자 94spice@hanmail.net

풍산 그라비아 POONGSAN GRAUVRE

생명력을 가진 식품 포장재 생산!!!

좋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포장재를 생산합니다.

★ 생산품목

지퍼백, 진공포장지, 제과봉투류, 커피봉투류, 각종 호일백류, 애견 식품 및 용품포장류, 뉴시용품 포장지류

★ 용도

농산물 가공식품, 수산물 가공식품, 축산물 가공식품, 조리식품, 기타 각종비닐포장지류

★ 가공제품

스탠딩삼방, M자기공, 스탠딩지퍼, T자기공, 지퍼삼방, 기타 다양한 가공, 생산설비보유

포장기 생산 제조라인을 모두 갖춘 전문회사

풍산그라비아는 포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